

# 북미 화인화문문학에 나타난 초국적 화인 가정과 그 의의\*

김혜준\*\*

## <目 次>

1. 중국문학과와의 차별화 시도
2. 화인 가정과 관련된 소재 중시
3. 화인 가정의 변화와 양상 묘사
4. 초국적 화인 가정의 상황 표현
5. 초국적 이주자 문학으로서의 화인화문문학

‘화인화문문학’은 화인이 화문(중문)으로 창작한 문학을 일컫는다. 여기서 화인이란 중국 외의 지역에서 장기간 거주하고 있는 한족(및 사실상 한족에 동화된 중국 출신 일부 소수종족)을 말한다. 중국 대륙학자들이 내세우는 ‘세계화문문학’은 이론적으로는 전 세계의 중문문학을 지칭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타이완, 홍콩, 마카오의 중문문학 및 세계 각지의 화인화문문학만을 다루고 중국 대륙의 중문문학은 다루지 않는다. 주로 북미 화인학자들이 주창하는 ‘시노폰 문학’은 기본적으로 중국 대륙 외의 지역에서 화어(중어)를 구사하는 사람이 화문(중문)으로 창작한 문학을 가리킨다. 그러다가 최근에는 중국 대륙 내에서 화어(중어)를 모어

\* 이 과제는 부산대학교 기본연구지원사업(2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부산대학교 중문과 교수, dodami@pusan.ac.kr

로 하지 않는 사람 즉 소수종족이 화문(중문)으로 창작한 문학을 포함시킨다.<sup>1)</sup> 이처럼 화인화문문학, 세계화문문학, 시노폰 문학은 그 정의와 범주 및 입각점이 각기 다르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문학 개념의 공통집합은 다름 아닌 화인화문문학이다. 이 글에서는 중국문학과 대비하여 지난 20년간 출간된 북미 화인화문문학의 작품에 나타나는 몇 가지 특별한 점을 찾아보고, 이를 통해서 화인화문문학의 독자성 및 그것에 대한 합당한 시각에 관해 검토해보고자 한다.

## 1. 중국문학과와의 차별화 시도

이 글에서 대상으로 삼은 북미 화인화문문학 작품은 단편소설 100여 편, 장편소설 4부, 장편 보고문학 1부 등이다.<sup>2)</sup> 필자가 조사해 본 바로는 대상 작품의 82% 정도가 중국이 아닌 북미를 공간적 배경으로 하고 있었으며, 그 대부분은 구체적인 도시 이름까지 알 수 있었다.<sup>3)</sup> 필자의 독서 경험상 중국문학에서는 대개 중국 자체를 공간적 배경으로 하고, 구체적인 지명이 등장할 경우에는 보통 자연스럽게 제시된다. 그런데 이

1) 심지어 王德威 같은 경우에는 중국 대륙의 국가주의적 중문문학이 아닌 작품을 모두 포함시키기도 하며, 최종적으로는 중국 대륙의 국가주의적 중문문학까지 포함시켜야 할 것이라고 제안한다. 이상 이 세 가지 주장에 관한 상세한 설명은 김혜준(2017.4), 김혜준(2017.1)을 참고하기 바란다.

2) 현재까지 북미 화인화문문학 작품을 대표할 만한 대형 선집이나 정기적으로 출간되는 시리즈는 없다. 이에 따라 중국 대륙, 홍콩, 타이완 및 북미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발표되는 작품 중에서 수집 가능했던 작품을 선별하여 대상으로 삼았다. 구체적인 작품 목록은 참고문헌을 참고하기 바란다.

3) 북미 화인화문문학이라고 해서 모든 작품이 북미를 무대로 한다거나 화인을 내세우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자면, 「玉蓮」(張翎)은 화자의 보모를 주인공으로 하여 1960년대 초반의 중국 대륙을 회상하고 있으며, 「冬元」(陳麗芬) 역시 중국 대륙을 배경으로 하면서 화자의 동료였던 한 농민 출신 병사의 불행한 죽음과 화자의 조문 과정을 서술하고 있다. 다만 이런 작품들도 심층적으로 보면 화인 이주자의 떠나온 고국에 대한 회고적 정서가 배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와 달리 북미 화인화문문학에서는 공간적 배경이 북미라는 점을 유달리 강조하고 있다. 특정 지명이 등장할 경우에도 앞뒤 문맥에 비추어 비교적 유난하게 드러내는 경향이 있다. 이는 북미 화인화문 작가들이 그들의 작품과 중국문학 작품을 구별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의도적이든 아니든 간에 양자 사이에서 일종의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차별화는 어디서 연유하는 것일까? 우선 이는 북미 화인화문 작가가 자신들의 삶과 밀접한 소재를 다루는 데서 오는 당연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필자가 보기에 여기에는 또 다른 요인이 있다. 일반적으로 화인화문 작가는 작품의 독자를 자신과 유사한 상황에 있는 화인으로만 상정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 대륙·타이완·홍콩 등지의 중국인으로까지 확대해서 상정한다. 달리 말하자면 그들은 더 많은 출판의 기회와 더 큰 독자의 호응을 의식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 때문에 자신의 작품에서 중국문학과는 다른 어떤 특색 있는 요소 또는 이국적인 요소를 부가하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 노력 중 한 가지가 북미라는 장소적 배경을 강조하는 것이다.<sup>4)</sup>

그렇지만 화인화문 작가들의 이런 차별화에 대한 각별한 노력은 가끔 그 정도가 과도하여 중국 권역 독자의 이해를 돕고 흥미를 이끌어내는 수준을 넘어서서 바람직하지 않은 부작용을 낳기도 한다. 이런 점은 대표적인 화인화문 작가의 작품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警探理查遜』(張翎)을 보면 강간피해자인 화인 여성 陳知更과 이 사건을 수사하던 백인 경찰관 理查遜은 결국 결혼에까지 이르게 된다. 그런데 전체 과정과 각 장면의 묘사는 마치 백인 총잡이와 인디언 추장 딸 사이의 틀에 박힌 러브스토리처럼 강하고 정의로운 백인 남성이 약하고 무지한 동양 여성을 구원해주는 식이다. 장편소설 『花兒與少年』(嚴歌苓)과 같은 작품도 그렇다. 이 소설은 남편을 사랑하고 자식까지 있는 徐晚江이라는 젊은 여성이 부유하고 안락한 삶을 찾아 수십 살 연상인 돈 많은 화인 이혼남 瀚

4) 김혜준(2018) 참고.

夫瑞를 따라 어린 딸만 데리고 미국에 이주하고, 그 뒤 중국에 남겨둔 아들과 전 남편을 차례로 불러들이면서 일어나는 갖가지 소소한 사건과 심리를 위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종종 미국 내지 서구에 대한 오해와 이해 부족을 넘어서서 그릇된 환상과 이미지를 조장한다. 예컨대 한밤중에 귀가하던 전처의 아들 路易가 계모인 徐晚江과 마주치자 만일을 대비해서 가글을 하고 나온다면, “미국에서는 널린 게 러브스토리이고 자칫하면 키스를 하게 된다.”(嚴歌苓, 2004: 130)라는 식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런 예에서도 보다시피 화인화문 작가의 차별화 시도가 부지불식간에 구미의 오리엔탈리즘을 확대 재생산한다든가, 중국권역 독자들의 이국적 취향에 영합하여 북미에 대한 환상을 자아낸다든가, 심지어 일종의 옥시덴탈리즘을 조장한다든가 하는 부작용으로 이어지기도 하는 것이다.

화인화문 작가들이 중국 권역 출판계와 독서계를 의식함으로써 생겨나는 부작용에는 이국적 취향에 영합하는 현상만 있는 것은 아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정치적 문제와 관련된 것이 그러하다. 중국 대륙 쪽의 출판계와 독서계를 의식하는 화인화문 작가의 경우 문화대혁명, 천안문 사건(6·4 민주화운동), 홍콩과 타이완 문제, 소수종족 문제, 중국 공산당과 관련된 사안 등등은 회피하거나 모호하게 처리한다. 반면에 홍콩과 타이완 쪽을 염두에 두는 화인화문 작가의 경우 이런 문제에 관해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때로는 오히려 더욱 적극적으로 다루기도 한다.<sup>5)</sup>

5) 呂曉琳(2019)은 제3장에서 화인화문 작가들과 화인영문 작가들이 각기 중국 어권과 영어권의 출판계와 독서계를 의식함으로써 생겨나는 일련의 현상에 관해서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 2. 화인 가정과 관련된 소재 중시

북미 화인화문 작가들의 주요 관심 사항은 어떤 이유로든 중국문학 작가들의 그것과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러다보니 중국 권역에서는 현실에서 존재하지 않거나 혹은 현실에서 존재하더라도 문학 창작에서 거의 다루어지지 않는 삶의 다양한 면면들을 보여주게 된다. 화인과 주류사회 또는 화인과 다른 소수종족과의 관계에 관한 것들이 그 중 하나다.

「紙鶴」(淩波)에는 베트남계, 태국계, 미얀마계, 크메르계, 아프리카계, 백인계 등 사회 주변부에서 살고 있는 다양한 소수종족 및 백인 빈곤층의 고투가 음울하게 전개된다. 「好小夥子」(範遷)에는 베트남 출신 쌍둥이 형제 阿倫과 山姆의 연속적인 강도 살인 행위를 서술하면서 은연중에 소위 아메리칸 드림을 내세우는 미국 사회를 비판한다. 말하자면 다른 소수종족의 처경에 대한 서술을 통해 그들과의 동지의식을 표현함과 동시에 화인에 대한 주류사회의 차별을 간접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楓迴路轉」(劉慧琴)에서는 오히려 화인이 화인을 착취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먼저 이민을 한 동생 부부는 형을 불러들여 거의 무보수로 5년이나 부려먹다가 나중에 형네 가족이 합류하면서 자립하려는 움직임이 보이자 사정없이 내쫓아버린다. 한밤중에 쫓겨난 형과 그의 아들은 비애와 피곤 속에서 그만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고 만다. 또 「殺人遊戲」(笑言)에서는 헤어진 흑인과의 사이에서 혼혈 자녀를 둔 화인 여성이 이혼남인 화인 남성의 구애를 받고도 아이 때문에 주저하는 모습을 통해서 차별 받는 화인 스스로가 주류 백인사회의 이데올로기를 체화하고 심지어 재생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알다시피 중국은 다종족 국가로서 각 종족의 평등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으며,<sup>6)</sup> 한때는 ‘조화로운 사회(和諧社會)’를 내세우기도 했고 최근에는

6) “중화인민공화국 각 민족은 일률적으로 평등하다. 국가는 각 소수민족의 합

‘차이나 드림(中國夢)’을 강조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중국문학에서는 아마도 이런 식의 소재와 관점을 가진 작품을 찾기가 그리 쉽지는 않을 것이다. 설령 소수종족에 대한 차별과 박해, 소수종족의 반발과 저항, 소수종족 간의 동지 의식,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 지적, ‘차이나 드림’에 대한 회의와 비판 등을 담은 작품이 창작된다 하더라도 과연 출판 내지 발표가 얼마나 가능할지도 의문스럽다.

북미 화인화문문학이 중국문학과 다른 면모는 물론 이런 사안들에만 그치지 않는다. 그 중 한 가지 주목할 것은 가정과 관련된 소재의 비중이 유달리 높다는 점이다. 가정과 관련된 사안은 원래 지역과 시기를 막론하고 문학작품에서 대단히 중요한 소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미 화인화문문학에서는 그 비중이 이례적일 만큼 대단히 높은 것으로 보인다. 필자가 대상으로 삼은 단편소설의 경우 (가정의 구성을 전제로 하는) 남녀의 연애와 결혼 문제를 포함해서 가정을 소재로 한 작품이 무려 88.9%나 차지했다.<sup>7)</sup>

북미 화인화문문학의 가정과 관련한 소재에서 보여주는 것은 크게 보자면 연애와 결혼, 부부 관계, 자녀 교육, 노부모 부양, 가정 경제 등 우리가 익숙한 또는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부류에 속한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보자면 종종 화인 이주자 특유의 상황이 나타난다. 또 그만큼 중국문학과는 구별되는 특이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외형적으로는 두루뭉술하게 가정과 관련된 범주에 속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으로는 중국문학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양상이 적지 않다. 이해를 위해서 약간의 예를 제시하는 것이 좋겠다.

「同屋男女」(冰凌)의 화인 남성 趙重光은 유럽계 백인 여자가 세를 낸 아파트에 다시 서브렛으로 들어가는데, 나중 두 사람은 육체적인 관계로까지 발전하고, 남성의 부인과 자녀가 미국으로 오게 되면서 비로소 끝

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고, 각 민족의 평등·단결·상부상조·조화 관계를 수호하고 발전시킨다.”(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1장 총강 제4조)

7) 비록 조사 대상의 규모가 작고 주관적인 통계이기는 하지만, 필자의 조사에 따르면 가정을 주요 소재로 한 작품이 약 58.6%, 부차소재로 한 작품이 약 30.3%였다.

이 난다. 「穿香奈兒的女子」(江嵐)의 화인 남녀 역시 실리콘 벨리의 비싼 집세 때문에 약간의 곡절을 거쳐 한 아파트에서 룸메이트로 살게 된다. 다만 앞의 소설과는 달리 그들은 성적인 접촉 없이 결혼상대로 발전하게 된다. 「狀元榜眼探花」(亞堅)의 유학생 如仙은 오로지 영주권을 얻기 위해 애정과 신분을 따지지 않고 집주인, 유부남, 농민 출신 노동자 등을 저울질하다가 결국 초등학교 학력인 맨 후자의 남자와 결혼한다. 「風·自由」(張慈)의 여주인공 宋은 넓은 세상으로 나가고 싶다며 20세의 어린 나이로 75세의 백인 노인과 결혼하여 미국으로 이주해 살고 있다.

여기서 보다시피 어떤 작품은 화인 이주자들과 서양인(백인)의 접촉 및 문화적 차이를 다루는가 하면, 어떤 작품은 북미에서의 거주를 위해 온갖 희생을 감수하는 화인 이주자의 특수한 상황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서 남녀의 연애나 결혼에 관련된 것이라고는 하지만 북미 화인화문문학에는 종종 이주자로서 화인의 독특한 삶이 표출되고 있는 것이다.

부부 관계에 관련된 소재 역시 마찬가지다. 중국에서는 있기 어려운 또는 있다 하더라도 그다지 주목받지 못하는, 그래서 중국문학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 「洋插隊」(少君), 「霧水情緣」(陳浩泉), 『尋找伊甸園』(陳浩泉) 등에는 이주지 내지 이국 타향에서 겪는 극심한 정서적 고독과 경제적 궁핍 때문에 미혼자는 물론이고 기혼자조차도 일시적인 동거를 선택하는 화인 남녀들이 언급된다. 특히 『尋找伊甸園』(陳浩泉)의 어떤 남녀는 그 결말이 참혹하다. 베이징 출신의 武凌은 아내를 남겨 두고 홀로 미국에 유학을 와서 학위를 받은 뒤 이민이 비교적 수월한 캐나다로 옮긴다. 그런데 부인 蘇紅이 합류하게 되자 곤경에서 벗어나기 위해 미국 유학 시절부터 동거하고 있던 난징 출신의 雪小林을 살해해버리고 만다.

이런 화인 남녀의 일시 동거는 허구적 상상의 소산이 아니다. 오히려 현실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소설에서 등장한 것이다. 장편보고문학 『楊光飯店』(劉松)에 기술된 姍姍이라는 여성 이야기가 한 가지 예다. 이 여성은 결혼한 후에도 예전부터 연모하던 동료 교사를 잊지 못해 남편과 아이를 남겨놓고 그 남성을 좇아 미국까지 온다. 미국에서 傑夫라는 이름을

쓰는 그 남성은 당시 그녀와는 역으로 아내와 아이를 남겨두고 단신으로 이주해 있었는데,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신분하락은 물론이고 외로움과 가난에 시달리고 있는 상태였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시 만난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동거에 들어간다. 그 후 여성의 남편이 그녀를 찾아 미국까지 오고, 남편 역시 미국에 남고 싶었지만 어쩔 도리가 없어 혼자 귀국하게 된다. 이 여성은 남편 때문에 잠시 헤어졌던 그 남성과 재결합하고 싶었지만 이미 불가능해진다. 이에 그녀는 미국에 남으려는 일념으로 여전히 유부녀인 채로 다시 운전 교습을 하는 다른 남성과 동거하면서 새로운 인생을 살기로 한다. (호텔 프런트 직원이었던 저자는 그녀에게 잘 했다고 격려해주었다고 한다.) 그러니 이런 일들을 간단히 애정 또는 부부와 관련된 소재라고 취급해버릴 수만은 없는 것이 아니겠는가?

물론 북미 화인화문문학에서 다루는 가정 관련 소재에서 보이는 이런 특이한 점은 남녀 관계 내지 부부 관계가 아닌 다른 부류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陪讀父親」(朱琦)의 老蔡는 원래 엔지니어였는데, 텍사스에 있는 유학생 딸을 뒷바라지하기 위해 중국에 아내를 남겨두고 홀로 머나 멀리 떨어진 미국의 다른 도시에서 6년째 허드렛일을 하며 노동과 고독에 신음하고 있다. 일가족 세 사람이 국경 이쪽저쪽에 흩어져서 각기 따로 살고 있는 것이다. 「我們的兒子跟別人的不一樣」(葛逸凡)에서 캐나다로 이주한 노부부는 아들 부부의 설득에 전 재산을 넘겨주고 정부 보조금으로 곤궁하게 산다. 그러나 아들 부부는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재이주를 한 후 아무런 소식이 없다. 노부부는 우리 아들만큼은 남들과 다르다고 믿고 싶어 하지만 사실 아들 부부는 이미 이민 전 예전의 그들이 아니다.

그런데 왜 이처럼 북미 화인화문문학에는 가정과 관련된 소재가 많이 나타나는 것일까?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회학, 인류학, 이민학 등 인접 학문 분야의 성과를 참고해가면서 진일보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다만 현재 필자의 판단으로는 우선 초국적 이주자들이 이주를 준비하고, 이주지로 이동하고, 이주지에서 적응해나가는 동안 직면하게 되는 많은



사안이 가족과 관련되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또 부분적으로는 개인보다 가정을 중시하는 출발지 중국의 문화 관념과 집단보다 개체를 우선시하는 이주지 북미의 문화적 환경 사이에서 혼란과 갈등이 발생하게 되고, 이 때문에 화인 1세대 이주자로서의 화인화문 작가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일 가능성도 있다.<sup>8)</sup>

### 3. 화인 가정의 변화와 양상 묘사

“소위 모자(학위), 자동차, 집, 아들, 그리고 마누라 이 ‘오관왕 달성’이라는 아메리칸 드림은 말만 해도 그 얼마나 마음을 뒤흔들어 놓는가. 하지만 이런 꿈을 현실로 만드는 길은 그야말로 가시밭길이어서 한 걸음 떼기도 어렵다.”(融融·陳瑞琳, 2008: 633) 「穿香奈兒的女子」(江嵐)에서 주인공이 경기 침체로 해고된 화인 동료가 짐 싸는 걸 거드는 장면에서 작가가 서술한 말이다. 미국의 화인 사회학자인 周敏(2006: 328) 역시 자신의 연구 결과 화인 이주자가 생각하는 ‘아메리칸 드림’은 자가 주택 구입, 자기 사업 경영, 자녀의 명문 대학 진학 등이라고 한다.<sup>9)</sup> 그렇다면 화인이 그토록 바라는 성공은 결국 온전하고 평온한 가정을 이루는 것과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북미 화인화문문학의 가정 관련 소재에서 두드러지는 점은 오히려 가정이 온전하지 않거나, 갈등 상황이거나, 해체되거나, 또는 재편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이다.

8) 이와 관련하여 周敏(2006, 345쪽)은 화인 청소년의 성장에 대한 가정의 영향을 설명하면서, “화인 이민 가정의 첫 번째 특징은 가정을 중시하고 집체의 책임을 강조하는 것으로, 미국 가정이 개인의 책임을 중시하는 것과는 다르다.”라고 말한 바 있다.

9) 다만 필자가 보기에는 한 가지를 더 추가해야 할 것 같다. 북미 화인화문문학 작품에서 대단히 빈번하게 거론되는 성공의 항목 중 하나가 영주권/시민권 취득이었다.

우선 논의의 편의를 위해서 부부 또는 부모와 자녀(및 조부모)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큰 어려움이 없는 가정을 ‘안정적인 가정’이라고 간주해 보자.<sup>10)</sup> 북미 화인화문문학 작품에서도 당연히 안정적인 가정의 모습이 적지 않다. 예를 들면, 캐나다 중소 도시의 따스한 일상을 묘사한 「親情」(葛逸凡), 이민자와 유학생으로 만나 행복한 가정을 꾸린 젊은 부부의 이야기인 「鼬鼠爲媒」(陳華英), 이주 후 혼인으로 맺어진 3대에 걸친 8명의 두 가족이 순조롭게 살아간다는 「彼岸的時光」(林楠), 버려진 울새 새끼를 키워 자연의 품으로 돌려주는 한 가족의 이야기를 쓴 「小鳥依人」(蘇煒), 주인공이 퍼즐 맞추기와 이리 저리 뛰이면서 취업, 연애, 결혼을 이루는 「拼版遊戲」(夏維東), 남편의 열쇠 실종 사건을 다루는 「失落」(木榆), 부부가 패스트푸드점을 하면서 외동딸의 학업에 전력을 다하는 「頭發問題」(曉寄), 첫딸을 낳은 후 아들 바라기로 중국의 한 자녀 정책을 피해 이민을 와서 다시 딸 쌍둥이를 낳은 가족의 이야기인 「生個加拿大」(原志), 또 모든 면에서 실로 이상적인 『尋找伊甸園』(陳浩泉)의 余丹逸 가족 외에 다수 작품의 가정이 모두 여기에 속한다.

이처럼 일일이 거론하기에 다소 번거로울 정도로 안정적인 가정이 적지 않기는 하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본다면 이런 안정적인 가정의 상황보다는 등장인물의 이주를 전후하여 가족이 별거한 다든가, 위기를 겪는다든가, 더 나아가서 해체된다든가, 또는 재편되는 상황이 훨씬 많이 나타난다.<sup>11)</sup> 다시 작품 속의 구체적인 예를 보도록 하자. 「日落舊金山」(呂紅)의 인물 林浩는 부인과 이혼 후 미리 조기 유

10) 여기서 편의상 ‘안정적인 가정’이라고 했지만, 이것이 곧 ‘정상적인 가정’과 ‘비정상적인 가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단순히 논의의 편의를 위한 용어일 뿐이다. 더구나 오늘날 외형적으로 초혼의 부부 및 자녀로 구성되는 가족은 미국이든 중국이든 또는 한국이든 갈수록 줄어들어 그 비율이 생각만큼 그리 높지도 않다.

11) 이와 관련해서 미국에 이주한 한인 이민자의 이혼율을 참고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민병갑이라는 학자의 연구에 따르면, 1990년 미국 인구센서스에 나타난 한인 이민 남성들의 이혼율은 한국에 있는 남성들의 이혼율의 3배에 달하고, 한인 이민 여성들의 이혼율은 한국 여성들의 이혼율의 5배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된다고 한다. 윤인진(2004, 238-239쪽) 참고.

학을 보내 두었던 아이들과 합류하고, 雲雲은 남편과 이혼 후 아이들을 남겨 놓고 혼자 이주한다. 같은 작가의 「美國尋夢」(呂紅)에 등장하는 화인 교수는 미국에서 타이완 출신 제자를 만나 결혼하지만 그녀로부터 이혼 당하고 양육권마저 뺏기는데, 나중에 다시 아이 딸린 대륙 출신 여성과 재혼한다. 「地久天長」(李彥)의 화인 남성은 출장길에 문화대혁명과 캐나다 이주 등으로 인해 결혼과 이혼을 반복하다보니 세 번이나 결혼한 자신의 지난 시절을 회상한다. 「嚴冬」(金依)과 「自毀」(張初)에서는 이주 후 실업 상태에서 사회적 신분 하락과 가정 내 지위 변화를 못 견딘 남편이 가정 폭력까지 자행함으로써 결국 가정 파탄을 초래하고 만다.

더욱 심한 경우도 있다. 「鹹淡人生」(邵丹)에 나오는 주인공의 친구 小純은 실리콘 벨리의 감원 바람으로 실직하고 남편과도 별거하다가 마지막엔 남편을 살해한 후 자살하는 것으로 생을 마감한다. 『尋找伊甸園』(陳浩泉)의 홍콩 출신 楊慧 가정은 심하다 못해 극단적이다. 楊慧는 홍콩에 남은 남편 馬茂成이 이중살해를 하지 않나 의심하던 중 자신이 오히려 딸의 남자친구와 육체적 관계를 맺는다. 이후 가족들이 알게 되면서 가정은 풍비박산이 나는데, 특히 이주지에서 적응에 어려움을 겪던 아이들은 이런 일까지 벌어지자 막다른 길로 내닫는다. 큰 딸 如芳은 남치 자작극을 벌이고, 아들 如林은 가출 후 17세의 나이에 살인을 저지른다.<sup>12)</sup>

앞에서 다른 사항과 관련하여 이미 거론했던 작품들을 포함해서 많은 작품의 가정이 이런 식이다. 즉 대상 작품 전체를 두고 본다면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가정보다는 이처럼 불안정한 가정이 압도적으로 많다. 북미 화인화문문학 작품에서 이처럼 불안정한 가정 상황이 압도적으로 많이 등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또는 북미 화인 사회에서 이런 가정 상황이 자주 일어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도 이주의 목적·자격·여건, 법률·경제·사회·문화적 조건을 위시한 이주지의 전체적 환경, 이주 전후의 경제적 상황과 사회적 신분의 변동, 가족 구

12) 같은 작가의 단편소설 「溫哥華的月亮」(陳浩泉) 역시 이 이야기와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

성원의 역할 및 지위 변화, 이주자 각자의 정서적 심리적 상태, 이주에 따른 관념과 가치관의 변화 등등 수많은 요소들이 모두 이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sup>13)</sup>

가령 가족 중 일부가 유학·취업 등을 목표로 먼저 이주를 하고 나중에 가족이 합류할 작정이었다면 당연히 당분간 가족과 별거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장기간에 걸쳐 별거를 지속하거나, 상당 기간이 지난 뒤에야 비로소 합류하게 될 것이다. 또한 여러 가지 변수가 발생하여 아예 합류하지 못하기도 하고, 설령 합류하더라도 그 사이에 크게 상황이 달라졌을 수도 있다. 이런 모든 점을 고려해본다면, 이주를 전후하여 일단 별거를 할 수밖에 없었던 화인 가정이 위기를 겪거나 해체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바로 이런 상황은 작품에도 제법 많이 나타난다. 「鴉」(陳華英)의 홍콩 출신 靜文의 가족은 법적으로는 모두 캐나다로 이주를 한 상태다. 하지만 남편은 사업 때문에 주로 深圳에서 활동하면서 가끔씩 가족을 보러오고, 靜文은 그에게 딱 여자가 있지 않나 의심한다. 「入門」(慧卿)의 홍콩 출신 咪咪의 가족도 유사한데, 남편이 딱 여자를 이유로 아예 이혼을 하면서 경제적 지원을 끊어버리고, 咪咪는 일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져 사실상 퇴폐업소가 된 안마시술소에 나가게 된다. 이런 예는 비일비재해서 어찌면 세삼 예를 들 필요가 없을 정도이다. 앞서 본 「女房東」(嚴歌苓)의 주인공과 전처, 『花兒與少年』(嚴歌苓)의 주인공 徐晚江의 전 남편과 딸, 장편소설 『尋找伊甸園』(陳浩泉)의 武凌과 그의 가족, 보고문학 『楊光飯店』(劉松)의 姍姍와 남편, 「陪讀父親」(朱琦)의 세 식구 등도 모두 그러하다.

또 다른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다. 실사 가족 전원이 함께 이주하더라도 출발지와 이주지 사이에 존재하는 다방면의 현저한 차이 역시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주지의 경제적 사회적 여건뿐만 아니라 서구적 관

13) 周敏(2006, 324-329쪽)은 오늘날 화인 이주자들이 도착한 후 일반적으로 겪는 곤경으로 다음 세 가지를 언급하면서 각각에 관해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첫째, 가정의 구조 및 그 주변의 사회 문화 환경의 급변, 둘째, 가정의 관계 및 그 내부 환경의 급변, 셋째, 세대 차이의 심화가 그것이다.

념과 관습까지 작용하여 가족 구성원이 각기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이면서 혼란·갈등·위기가 생겨나기도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돌이킬 수 없는 파경을 맞게 되기도 하는 것이다. 이런 점은 앞에서 언급한 「嚴冬」(金依)과 「自毀」(張初)나 「我們的兒子跟別人的不一樣」(葛逸凡)에서처럼 부부 사이라든가 노부모와 성년의 자식 사이에서만 발생하는 것도 아니다. 이민 1세대인 부모와 이민 1.5세대 또는 2세대 자녀 사이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아니 어쩌면 세대 차이와 더불어 중서 문화적 차이까지 작용하게 되어 심각하든 아니든 간에 더욱 빈번하게 발생할지도 모른다.

「成年」(余曦)에서 올해 15세가 된 딸은 자신의 생일날 남자친구 집에서 파티를 한 후 자고 들어오겠다고 선언한다. 충격을 받은 부모는 온갖 심리적 갈등 끝에 콘돔을 선물하는 것으로 세대 차이와 중서 차이를 수용하기로 한다(나중 콘돔은 불필요함이 밝혀진다). 전술한 「頭發問題」(曉晞)의 부모도 유사한 사정을 겪는다. 곧 16살이 되는 딸은 성적도 뛰어나고 행동도 반듯한 모범생으로, 이민 온 지 10여 년이 된 부모에게는 망망한 이주 생활에서 일종의 등불이나 다름없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딸이 머리를 온통 빨간색으로 염색하고 나타난다. 온갖 상념과 노심초사 끝에 결국 딸아이의 빨간색 머리를 빗겨주는 방식으로 이를 받아들여지게 된다. 여기서 보다시피 중국적 가치관을 가진 이민 1세대 화인 부모로서는 그들보다 빨리 그리고 쉽사리 이주지의 가치관에 적응해가는 이민 1.5세대의 행위를 받아들이기가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그나마 여기서는 부모 자식 사이에서 타협점을 찾은 것으로 서술되어 있다. 아마도 이는 작가의 희망 사항이 투영된 결과일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그 반대의 경우는 또 얼마나 많을 것인가? 예를 들면, 앞서 『尋找伊甸園』(陳浩泉)에 나오는 楊慧 가정의 어른들과 아이들은 그야말로 참담한 결말을 빚어내지 않았던가?

일단 정리를 해보도록 하자. 이와 같은 현상의 근본적인 원인은 다름 아닌 초국적 이주 그 자체 때문이다. 즉 초국적 이주로 인해서 화인 가정 내에서 구성원의 신분 지위·사고 관념·정서 상태·행위 양태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이로 인해서 화인 가정이 크고 작은 도전·갈등·위

기·해체·재편 상황을 맞이하게 되며, 이 때문에 결과적으로 화인화문 문학 작품에서 그렇게나 많이 그리고 자주 이런 문제들이 다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 4. 초국적 화인 가정의 상황 표현

북미 화인화문문학에서 나타나는 초국적 이주자 가정 특유의 여러 가지 모습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초국적 가정의 출현과 양상이다. 단어의 표면적 의미에서만 본다면 초국적 가정이란 영구 이주 여부와 상관없이 두 개 이상의 국가에 가족 구성원이 흩어져 사는 가정이라고 할 수 있다. 따져보면 이민이라든가 해외 유학·취업 등의 국외 장기 체제로 인해 여러 나라에 걸쳐 가족이 분산 거주하는 경우는 과거에도 없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왜 ‘초국적 가정’이란 용어를 사용하면서 굳이 과거의 경우와 구분하는가? 그것은 오늘날의 초국적 이주자들이 이전과는 달리 전 지구적인 정보와 경제의 공유를 통해 출발지(및 경유지)와 이주지 사이에서 초국적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활용하면서, 빈번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국가 간 경계를 넘나들며 전방위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 바로 이 점이 관건이다. 기본적으로 이민 및 (이민을 전제로 한) 유학·취업 등의 장기 체재로 인해 가족 구성원이 여러 국가에 흩어져 살고 있으면서, 더 나아가 자신들이 가진 자원과 기회를 극대화하기 위해 초국적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하며 초국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점이 핵심인 것이다.

오늘날 화인 이주자의 가정 역시 마찬가지여서 이미 초국적 가정이 출현한 것은 물론이요 갈수록 더욱 증가하고 있다.<sup>14)</sup> 이에 따라 북미

14) 약 15년 전인 2004년에 이미 “초국적 가정이 현재 오늘날 화인 신규 이주자들 정주의 또 다른 유형이 되었다.” 周敏(2004, 61쪽)라고 평가될 정도였다.

화인화문문학 작품에도 초국적 화인 가정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그 양상 역시 제법 다양하게 묘사된다. 비록 엄밀한 기준에 의한 것은 아니지만 북미 화인화문문학 작품에 나타나는 초국적 가정은 대략 다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서 살펴 볼 수 있다.

첫째, 유학·취업·결혼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애초 일부 성인 구성원이 먼저 이주하고 부모·배우자·자녀 등이 출발지에 남아 있어서 초국적 가정을 형성하는 경우다. 몇 가지 사례를 보자.

「鹹淡人生」(邵丹)에는 주인공 柳欣에 이어서 오빠도 이민을 하고 그 후 다시 모친까지 오빠네에 합류한다. 「彼岸的時光」(林楠)의 주인공 부부는 유학, 이민, 취업에 성공한 뒤 부모를 초청 이민시킨다. 「夢醒時分」(秋塵)에 나오는 58세의 상하이 출신 阿諾는 가족이 모두 미국에 이주한 상태에서 자신은 매년 신붓감을 찾아 중국을 오간다. 그러던 중 마침내 국제전화화를 통해 언약한 39세의 텐진 여성 嶋儀와 중국에서 결혼을 한다. 하지만 신부를 남겨 두고 혼자 미국으로 돌아온 후 그녀의 이민 수속을 해야 할지 말지 여전히 갈등한다. 「叛逆玫瑰」(孫博)에 나오는 홍콩 기업의 토론토 지사장인 사주 아들 司徒劍과 타이완 출신으로 유학을 마친 후 이곳에 취업한 馬珊은 각기 사업과 유학 때문에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부모와 떨어져 살다가 캐나다에서 새로운 가정을 꾸리게 된다. 두 사람의 결혼과는 별개로 그들은 줄곧 각자 홍콩 본사의 아버지 그리고 타이완 본가의 부모와 수시로 연락하고 내왕하는 등 초국적 네트워크를 유지하면서 홍콩과 타이완 쪽의 물질 심리적 지원을 받는다. 특히 司徒劍은 타이완과 캐나다 유학 경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업무상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있다.

「砂谷女媧」(曾寧)에 나오는 女媧라는 별명의 여성은 외형상 술집 주인 吉米的 약혼녀 자격으로 미국에 와있지만 사실상 술집 접대부를 하고 있다. 그녀의 유일한 희망 사항은 영주권과 경제력을 확보하여 중국에 두고 온 아들을 데리고 오는 것이다. 이에 화자는 중국 방문 길에 그녀의 과거 행적과 아들의 현재 상황을 알아보고 돌아온다. 「成年」(余曦)에서 주인공 부부는 유학 때문에 7, 8세의 딸아이만 남겨두고 미국으로

오고, 수년이 지나 캐나다 영주권을 취득한 뒤 비로소 딸아이를 불러들이게 된다. 그들이 다시 상봉했을 때 서로 소원한 감정을 피할 수 없었으며, 나중 딸이 점차 미국에 적응하게 된 후 부모 자식 사이에 세대 차이와 중서 차이까지 겪게 된다.

이 외에도 대상 작품 중에는 가족 구성원이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일시적으로 별거함으로써 초국적 가정을 형성하게 된 이야기가 대단히 많다. 하지만 이상의 예만 봐도 충분히 알 수 있다. 사정상 가족이 서로 다른 국가에 분산되어 있어도 그들 대부분은 상호 내왕이 가능하다. 설령 그것이 어려운 경우라 하더라도 최소한 어떤 방식으로든 초국적 네트워크가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순조롭다는 것은 아니다. 이들 분산된 가족은 재결합을 하든지 또는 그럴 예정이다. 그러나 서로 떨어져 있는 동안 종종 예상치 못한 상황 변화가 생기거나 감정적으로 멀어지면서 가족이 위기를 겪기도 한다. 심한 경우에는 해체되기도 하며, 또 때로는 합류를 하고 난 이후에 이런 후유증을 겪기도 한다.

둘째, 경제적 문제나 체류 자격 문제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서, 형식적으로는 가족 전원이 이주하지만 그들 중 주로 가족 경제를 책임지는 일부 성인 구성원이 처음부터 주로 출발지(또는 이주지가 아닌 다른 곳)에서 활동을 계속하거나 일정 기간 후 출발지로 역이주함으로써 초국적 가정을 형성하는 경우다. 앞서 설명한 「鴉」(陳華英)의 靜文 가족, 「入門」(慧卿)의 咪咪 가족, 『尋找伊甸園』(陳浩泉)의 楊慧 가족을 상기하면서, 여기서는 다른 두 가족의 예를 들어보자.

「再生花」(冬青)는 「“秦香蓮”之演出」(冬青)의 후속편으로, 綺玲과 逸民 부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이들 부부는 모두 대륙 출신으로 문학을 거친 후 홍콩으로 이주했다가 1997 홍콩반환 직전 이민 열풍 속에서 다시 아이들과 함께 캐나다로 이주한 상태다. 그러나 남편 逸民이 香港, 深圳, 珠海에서 사업을 계속하면서 수시로 오가는 하지만 여쩔 수 없이 서로 떨어져 살게 된다. 그러던 중 남편 逸民이 혼외 여성 小敏의 임신을 핑계로 이혼을 요구하면서 20여 년의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게



된다. 그 후 綺玲과 아이들은 살던 집을 처분하고 이사를 할 정도로 살림 규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한다. 이 과정에서 綺玲은 이혼한 타이완 출신 부동산 매니저와 점차 감정적으로 가까워지지만 애써 자신을 경계하며 조심한다. 『尋找伊甸園』(陳浩泉)의 타이완 출신 Alice는 세 자녀와 함께 캐나다에서 생활하고 있고, 남편 徐原華는 신분상으로는 캐나다 국적이지만 여전히 타이완에서 남아 사업을 하고 있다. 다행히도 전술한 홍콩 출신 楊慧네와는 달리 Alice와 세 아이는 비교적 이주지에 잘 적응한 상태다. 그런데 문제는 오히려 남편 쪽에서 일어난다. 그녀의 남편은 사업에 실패하고 정부마저 자신을 배신하자 캐나다에 건너와서 가족을 총기로 살해한 후 자신도 목숨을 끊어버린다. 이리하여 일가족 다섯 명 중 10살 된 막내만 간신히 살아남는다.

이런 작품들에서 보여주듯이 가족의 경제 활동을 책임지는 사람이 가족과 떨어져 다른 국가에서 생활하는 경우에는 대개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서로 오가게 된다. 이런 가정을 일컬어서 한국에서는 ‘기러기 가정’, 화인 및 중국 권역에서는 ‘우주인 가정(太空人戶)’이라고 한다. ‘기러기 가정’ 현상은 특히 홍콩과 타이완 출신 이주자가 많은 캐나다 지역에서 비교적 현저했다. 이는 이들 지역 출신 청장년 남성 화인들이 법률적으로는 이주를 했지만 실제로는 처음부터 출발지에서 그대로 남아 있거나 또는 일단 이주지로 왔다가 출발지로 역류한 것과 관계가 있다. 화인의 입장에서 보자면 기본적으로 북미 지역에서 부의 축적이나 신분 상승의 기회가 제한적이었고, 또 경기가 나빠지는 등 경제 상황에 변동이 일어나 이마저도 악화되기 일췌였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출발지 홍콩이나 타이완이 사회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경제적으로 활성화되었다. 이에 따라 사업 여건이 호전되거나 또는 해외 인재의 수요가 늘어나게 되었으며, 자연스럽게 출발지에서 활동을 계속하거나 출발지로 역류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이리하여 수많은 기러기 가정이 생겨나게 된 것이다.<sup>15)</sup>

15) 화인의 역이주와 ‘기러기 가정’ 현상에 관한 일부 설명은 윤영도(2014), 김혜준(2017) 참고.

다만 모든 기러기 가정 또는 역이민 가정이 꼭 이런 상황과 관계가 있다든가 혹은 그들이 모두 반드시 초국적 가정을 형성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吾老, 不被“老”」(陳浩泉)에서 장남인 偉邦은 홍콩에 계신 부모님을 캐나다로 모시고 오지만 의료비 등의 문제로 결국 아버지를 홍콩에 돌려보내기로 한다. 「夢醒時分」(秋塵)의 阿黃은 중국으로 돌아가 쓰촨 여성과 재혼하고, 「叛逆玫瑰」(孫博)의 吳志剛 역시 부모가 있는 타이완으로 역이민을 하며, 「鹹淡人生」(邵丹)과 「路口」(老搖)에도 실리콘 벨리의 경기 침체로 역이민 하는 사람들이 등장한다. 또 「維維安在美國的最後一天」(曾曉文)의 주인공 維維安은 병들어 누운 모친을 보살피기 위해 중국 대륙으로 돌아간다. 즉 상대적으로 적은 숫자이기는 하지만 구성원이 이주지에서 이주 자격 미충족 등 경제적 이유가 아닌 다른 이유로 되돌아가는 수도 있으며, 어떤 가족은 역이민 때문에 초국적 가정을 형성하게 되지만 또 어떤 가족은 오히려 초국적 가정에서 해소되기도 하는 것이다.

북미 화인화문문학 작품에서 ‘기러기 가정’에 대한 서술은 꽤 많은데, 아마도 그만큼 많이 존재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그만큼 문제가 되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이른바 ‘기러기 가정’에서는 가족의 경계를 책임지는 성인 남성이 홀로 떨어져 사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앞의 예에서 보듯이 그들의 초국적 활동은 가족 구성원의 유대감이 약화되는 것으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종종 가정의 위기가 발생하게 된다. 특히 부부가 장기간 떨어져 살면서 사이가 소원해지거나 혼외정사가 일어나거나 심한 경우 이혼에 이르는 수가 적지 않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이주지 사회의 영향으로 인해 가족들의 생활, 관념, 정서에 생긴 변화가 상당히 큰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sup>16)</sup> 필자가 보기에 이런 면에서 가장 대표적인 작품은 「溫哥華的私房菜」(也斯)이다. 이 작품은 아마도 역이주를 위해 위장 이혼한 것으로 보이는 부부 사이에서 전개되는 미묘한 변화와 갈등이 사실은 남성과 여성의 사회적 지위 및 가정 내 역할

---

16) 김혜준(2017) 참고.

에 대한 제도와 관념의 변화에 의한 것임을 대단히 잘 보여준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것이 근본적으로 출발지와 이주지와의 사회 문화적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임을 훌륭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셋째, 가족 전체가 이주했다가 미성년 자녀만 남겨 두고 부모는 출발지로 돌아와 활동하거나 처음부터 조기유학 등의 형태로 미성년 자녀만 먼저 이주시키고 부모는 출발지에서 그냥 생활함으로써 초국적 가정을 형성하는 경우다. 이 경우에도 대개 부모가 국경을 넘어 오고가기 때문에 ‘기러기 가정’ 형태의 초국적 가정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 점에서 보자면 앞의 유형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핵심은 미성년 자녀가 이주지에서 부모 없이 사실상 단독으로 거주하거나 가디언(guardian, 보호자)이라고 불리는 타인의 집에 기숙하면서 사실상 독립적으로 생활한다는 것이다.<sup>17)</sup>

장편소설 『小留學生淚灑異國』(孫博)는 중국 대륙 각지에서 수십 명이 단대로 캐나다로 와서 조기 유학을 하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작가가 비교적 낙관적으로 서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아이들은 온갖 시련과 고통을 겪는다. 앞서 살펴본 「日落舊金山」(呂虹)에 나오는 林浩의 아이들은 부모 없이 조기 유학을 했는데, 그들이 일종의 문제가 된 것은 이주로 인한 충격과 부모의 보살핌 부족이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他是我弟弟, 他不是我弟弟」(陳浩泉)의 두 아이는 일단 정식 이주했다는 점에서 앞과는 상황이 다르다. 이 작품에는 홍콩 출신 화인 부자와 타이완 출신 화인 모자가 캐나다에서 결합하여 새로 가정을 이룬다. 그런데 재혼한 부모는 사업상의 이유로 대륙·타이완·홍콩·밴쿠버를 수시로 오가고, 이복형제는 밴쿠버에서 사실상 단독 거주하고 있어서 심지어 음식조차 국제전화로 엄마에게 물어가며 조리를 한다. 더구나 동생은 갈수록 학교생활에 적응하기 어려워하던 중 불법 자

17) 周敏(2004, 359-388쪽)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1980년대에 이미 타이완 출신의 조기유학생이 등장했고, 1990년대가 되자 대륙 출신의 조기유학생이 가세하는 한편 이민자의 미성년 자녀가 단독 거주하는 현상이 출현했다고 한다. 다만 필자가 대상으로 한 작품에서는 중국 대륙 출신인 조기유학생이나 ‘기러기 가정’을 발견할 수 없었다.

동차 경주에 나섰다가 혼수상태에 빠지고, 형은 부모와는 연락이 안 되는데다가 성인이 아니어서 법적으로 동생의 긴급수술을 결정할 수가 없다.<sup>18)</sup>

이런 예에서 보다시피 미성년자들이 단독으로 거주하거나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경우 문제가 적지 아니 발생한다. 물론 온갖 악조건 속에서도 무사히 극복하고 성공하는 케이스가 없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언어·학업·교우 관계·생활 등에서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이를 도와주고 격려해줄 성인 보호자가 없다보니 방황하고 일탈하게 될 가능성이 훨씬 크다.<sup>19)</sup> 그렇지만 다른 시각에서 보자면 이런 가정의 출현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하다. 왜냐하면 이들 미성년자들은 이런 과정을 거치는 동안 출발지 사람들은 물론이고 초국적 이주 1세대인 부모 세대와 상당히 다른 신분 정체성을 가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한 번 「他是我弟弟，他不是我弟弟」(陳浩泉)에 나오는 이복형제의 경우를 보도록 하자. 그들이 현재 온갖 어려움을 겪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어쨌든 여러 종족 출신의 사람들과 함께 캐나다인의 일원으로서 생활해나간다는 것도 틀림없다. 그들은 여러 종류의 언어를 혼용하는데, 심지어 가족끼리도 여러 가지 언어(타이완과 홍콩의 방언, 중국 표준어, 영어)를 섞어 쓴다. 그런 그들은 어쩌면 언제든지 다시 국적을 변경할 가능성이 있으며, 그런 면에서 그들이 자신을 과연 어떤 인간 집단에 소속되어 있다고 생각할지 불분명하다. 따라서 아직 어린 두 이복형제는 장차 스스로를 어떻게 규정할지 더더욱 알 수 없다. 이처럼 자신이 가진 모든 자원을 두루 활용하며 살아가는 그들과 같은 오늘날의 이런 새로

18)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법적으로 18세 이하의 미성년자가 단독 거주를 할 수는 없으며, 13세 이하의 미성년자가 성인 없이 집안에 있으면 안 된다. 따라서 이 소설의 두 청소년은 사실상 불법적인 상태로 거주하는 셈이다.

19) 이 문제와 관련해서 周敏(2004, 368-369쪽) 역시 “이 아이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미국에서 공부하는 것은 홍콩, 타이완, 대륙에서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수월하다. 게다가 주변의 사회 문화 환경이 자유롭고 개방적이어서 ... 이런 새로운 초국적 가정에서 성장하는 것에는 위기로 가득 차 있다.”라고 말한다. 다만 부모가 먼저 이주하면서 출발지에 미성년 자녀를 남겨 놓는 경우는 대부분 조부모나 다른 친척에게 위탁되기 때문에 이들과는 상황이 다르다.

운 이주자들을 꼭 집어서 어떤 특정 국가나 종족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또 이런 이주자들을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디아스포라라고 말할 수도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이 작품에서 보여주는 초국적 가정에는 과거에 없던 그리고 현재 형성되고 있는 다중적이고 유동적인 새로운 형태의 신분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sup>20)</sup>

## 5. 초국적 이주자 문학으로서의 화인화문문학

이상에서 보았듯이 북미 화인화문문학에는 초국적 네트워크를 활용하면서 초국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초국적 화인 가정이 다수 등장한다. 이는 화인화문문학을 어떻게 볼 것인가와 관련해서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

20세기 중반 이래, 특히 1980년대 이래 전 지구적인 경제 체제 하에서 노동의 수시 이동, 교통의 발달, 커뮤니케이션의 발전 등이 결합하여 초국가적 이주자들이 양적으로 더욱 증가되고, 공간적으로 더욱 확대되고, 시간적으로 더욱 잦아지고, 현상적으로 더욱 보편화되고 있다. 특히 종래의 이주자들이 주로 식민·난민·이민·강제 이주 등의 형태로 이루어져서 영원히 출발지로 되돌아갈 수 없었다고 한다면, 이 새로운 이주자들은 그들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출발지(및 경유지)와 이주지를 자유롭게 오가면서 양쪽의 자원을 모두 활용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오늘날의 초국가적 이주자들은 국적을 일종의 수단으로 간주하는 21세기 형

20) 김혜준(2018) 참고. 오늘날의 많은 초국적 이주자들은 자신이 가진 모든 자원과 기회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특정 영토와 특정 국가에만 집착하지 않는다. 따라서 엄한진(2011), 윤인진(2004) 등에서도 여러 차례 언급되었듯이, 초국적 이주자들은 다중적이고 유동적인 정체성을 갖는 경우가 많다. 오늘날의 화인 이주자들 역시 마찬가지이며, 이 작품을 비롯해서 다른 작품에서도 이런 모습이 종종 표현되고 있다. 다만 짧은 이 글에서 모든 사항을 다 다룰 수는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차후의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유목민적인 정서와 사고를 가지게 되었다.<sup>21)</sup>

21세기형 초국적 이주자로서 북미의 화인 이주자 역시 마찬가지다.<sup>22)</sup> 이들은 과거에 비해 교육 정도가 높고 재력도 갖추고 있으며, 망명·추방·난민·계약 노동 등에 의한 이주보다는 유학·자녀 교육·전문직 취업·출발지의 정치적 위험 회피·이주지의 안정된 생활 등을 목표로 하는 이주가 많다. 이 때문에 단순 노동 이민은 급감하고 그 대신 교육 이민, 전문직 이민, 투자 이민 등이 급증하고 있다. 이주 방식 역시 사전 정보가 부재한 상황에서 인력 송출 회사 및 친족 친지에게만 의지하던 과거와는 다르다. 대부분 이주 이전에 사전 조사를 충분히 하고, 직업·거주 지역·주택 등을 사전 결정하는가 하면, 이주지 도착 후 화인 집거지인 차이나타운에 거주하기보다는 교외 지역에 정착하는 경우가 많다. 언어생활에 장애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준비해서 이주하며, 이주 후 성공의 척도는 자가 주택 구입, 자기 사업 경영, 자녀의 명문 대학 진학 등이다.<sup>23)</sup>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점은 이들이 지식과 정보 및 재력 외에도 초국적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중국 대륙·타이완·홍콩·마카오라든가 심지어 동남아시아 등 그 외 지역과의 복합적인 초국적 네트워크를 유지하면서, 적극적으로 초국적 활동을 전개하고 최대한으로 그 자원을 활용하고자 한다. 특히 이런 태도는 이른바 ‘중국 굴기’로 인해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 간단히 말하자면 오늘날의 화인은 전 지구적인 21세기형 초국적 이주자와 마찬가지로 그 일원으로서 초국적 네트워크를 갖추고 초국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이들 중 일부는 불가피하게 또는 자연스럽게 초국적 가정을 형성하게 된

21) 김혜준(2011) 참고.

22) 캐나다에는 1789년부터, 미국에는 1852년부터 화인이 이주하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북미 지역 화인의 대다수는 화인 1세대에 해당할 정도로 신규 이주자의 비율이 높다. 예컨대 21세기 초 미국 화인의 경우 이민 1세대가 70%, 이민 2세대가 20%, 이민 3세대가 10% 미만이다. 周敏(2004, 3쪽) 및 김혜준(2018) 참고.

23) 이상 일부 내용 周敏(2004) 참고.

것이다.

북미 화인화문문학에서 나타나는 초국적 가정의 구체적인 양상은 중국문학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그리고 이는 화인화문문학이 중국문학과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 물론 이미 말했듯이 이처럼 초국적 네트워크의 활용과 초국적 가정의 형성은 화인 이주자에게서만 일어나는 현상은 아니다. 출신 국가나 출신 종족을 불문하고 오늘날 21세기형 초국적 이주자 집단 전체에서 일반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현상이다. 그런데 오히려 이 점이 중요하다. 화인화문문학은 초국적 이주자 집단의 일원으로서 화인의 문학, 즉 전 지구적인 이주자 문학의 일부라는 점을 설명해 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화인화문문학 또는 더 나아가서 화인문학은 어떤 특정 국가나 지역의 문학에 국한된다기보다는 다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북미 화인의 문학은 哈金(Ha Jin),<sup>24)</sup> 應晨(Ying Chen)<sup>25)</sup> 등의 예에서 보듯이 화문(중문), 영문, 불문 등 그 사용 언어가 무엇이든 간에 중국의 문학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와 동시에 전통적인 국가문학의 개념에서 보자면 그것은 원칙적으로 미국 혹은 캐나다에 속하는 문학이며, 그 중에서도 미국 혹은 캐나다의 소수종족 문학이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더 나아가서 초국적 이주자의 문학이기도 하다. 즉 북미 화인의 문학은 전체 화인과의 관계 및 그보다 더 큰 범주로서의 초국적 이주자와의 관계 속에서 검토해야 마땅하다. 요컨대 화인화문문학이든 화인영문문학이든 또는 그 외 화인불문문학,

24) 哈金(Ha Jin): 1956년 라오닝 출생으로, 1985년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 현재는 보스턴대학에서 교수로 있다. 1989년부터 영문으로 창작을 시작해서 한글로도 번역된 대표작 『기다림(*Waiting*)』, 『광인(*The Crazy*)』, 『전쟁 쓰레기(*War trash*)』 등을 비롯하여 수많은 작품을 출간했다. 2011년 이후에는 시집 『錯過的時光』 등을 출판하는 등 화문(중문) 창작을 병행하고 있다.

25) 應晨(Ying Chen): 1961년 상하이 출생으로, 1989년 캐나다로 유학을 떠나 현재는 밴쿠버의 사이먼 프레이저 대학에서 창작과 연구에 종사하고 있다. 1992년 이래 불문으로 창작을 시작해서 대표작인 『배은망덕(*Lingratitude*)』 등 소설 8권과 평론집 1권을 출간했다. 그 중 다수 작품이 영어·이태리어·스페인어·독일어·중국어 등으로 번역되었으며, 중문판으로는 『배은망덕』이 『再見, 媽媽』라는 제목으로 나와 있다.

화인일문문학... 이든 간에 모든 화인문학은 초국적 이주자 문학의 일부로 볼 수 있으며 또 그렇게 보아야 하는 것이다.

세계화문문학을 내세우는 학자 및 시노폰 문학을 주창하는 학자들은 그동안 화인화문문학(또는 세계화문문학이나 시노폰 문학)에 대해 오로지 그것과 중국문학과와의 관계에 대해서만 주목해왔다. 세계화문문학 학자는 화인화문문학을 중국문학의 외부확산으로 포섭하고자 하고, 시노폰문학 학자는 화인화문문학이 '반중국'적인 성격 또는 '광의의 중국'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세계화문문학 학자는 중국 대륙문학 내지 그 주류문학으로서 중국 현대문학의 비중을 최대한으로 제고하고자 하고, 시노폰 문학 학자는 이를 최소한으로 제한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제 사고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중국문학이라든가 미국문학, 캐나다문학 ... 등과 같은 국가문학과와의 관련성에만 집중하여 화인화문문학을 보아서는 안 된다. 이와 더불어 마땅히 초국적 이주자 문학의 시각에서 보아야 한다. 그래야만 화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삶의 상황과 그들의 다중적이고 유동적인 정체성을 표현한 화인화문문학의 성격과 특징이 제대로 파악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는 한국문학과 한인한글문학 내지 한인문학의 관계에 관해 다시 검토해보아야 하는 21세기 한국의 사정과 결코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 【 參 考 文 獻 】

- 陳浩泉 主編, 『楓華文集: 加華作家作品選一集』, 溫哥華: 加拿大華裔作家協會, 1999.
- 陳浩泉 主編, 『白雪紅楓: 加華作家作品選二集』, 溫哥華: 加拿大華裔作家協會, 2003.
- 陳浩泉 主編, 『楓雨同路: 加華作家小說選』, 溫哥華: 加拿大華裔作家協會, 2009.



- 融融·陳瑞琳 主編, 『一代飛鴻: 北美中國大陸新移民作家短篇小說精選述評』, 北京: 中國文聯出版社, 2008.
- 嚴歌苓, 『花兒與少年』, 北京: 崑崙, 2004.
- 陳浩泉, 『尋找伊甸園』, 溫哥華: 加拿大華裔作家協會, 2004.
- 孫博, 『小留學生淚灑異國』, 北京: 群衆出版社, 2004.
- 劉松, 『楊光飯店』, 舊金山: 壹嘉出版, 2015.
- 呂紅, 「美國尋夢」, 『女人的白宮』, 廣州: 花城出版社, 2005.
- 陳浩泉, 「霧水情緣」, 『都市報(加拿大)』 2010.2.26/3.5.
- 陳浩泉, 「吾老, 不被“老”」, 『香港作家(香港)』 2010年 第4期.
- 김혜준, 「화인화문문학(華人華文文學) 연구를 위한 시론」, 『중국어문논총』 제50집, 2011.
- 김혜준, 「시노폰 문학(Sinophone literature), 경계의 해체 또는 재획정」, 『중국현대문학』 제80집, 2017.1.
- 김혜준, 「시노폰 문학, 세계화문문학, 화인화문문학 — 시노폰 문학(Sinophone literature) 주장에 대한 중국 대륙 학계의 긍정과 비판」, 『중국어문논총』 제80집, 2017.4.
- 김혜준, 「캐나다화예작가협회(加華作協) 단편소설의 특징과 의의 — 캐나다 화인화문문학의 의의와 과제」, 『중국현대문학』 제86집, 2018.
- 천하오취안 외 저, 김혜준 외 역, 『동생이면서 동생 아닌』, 서울: 지식을 만드는지식, 2016.
- 엄한진, 『다문화사회론』, 서울: 소화, 2011.
- 장태한, 『아시안 아메리칸 — 백인도 흑인도 아닌 사람들의 역사』, 서울: 책세상, 2005.
- 윤인진, 『코리안 디아스포라』, 서울: 고려대학교출판부, 2004.
- 趙慶慶, 「法裔文化中的魁北克華人文學」, 『世界華文文學論壇』 2013年 第2期.
- 吳奕錡選編, 『海外華文文學讀本——短篇小說卷』, 廣州: 暨南大學出版社, 2009.

陳浩泉主編,『楓華正茂: 加華文學評論集』, 溫哥華: 加拿大華裔作家協會, 2009.

周敏著, 郭南審譯,『美國華人社會的變遷』, 上海: 上海三聯書店, 2006.

呂曉琳,『美國華文小說中的雙重他者性與文化身份認同——以近期移居派華文華文小說與華人英文小說為中心』, 釜山大學博士學位論文, 2019.

Encyclopedia.com(“Chen, Ying 1961-” 항목)

<https://www.encyclopedia.com/arts/educational-magazines/chen-ying-1961>, 2019년 12월 10일 검색.

[Abstract]

## Transnational Overseas Chinese Families in North American Chinese-Language Literature

KIM Hyejoon

This paper aimed to examine the unique qualities of Chinese-language literature and befitting frameworks for understanding them by investigating the comparative characteristics of North American Chinese-language literature in the past 20 years from Chinese literature.

North American Chinese-language literary authors' main interests differ from that of Chinese literary authors. They feature aspects of lives that do not exist in the realities of mainland China, or if so, those that tend not to appear in Chinese literary works. One such example is the prominence of topics on domestic life. In North American Chinese-language literature, families tend to divert from traditional models, be in conflict, separated, or restructured. Among such depictions of overseas Chinese families in North American Chinese-language literature, the key features are the emergence and aspects of transnational families who are utilizing transnational networks and doing transnational activities.

Overseas Chinese families' utilization of transnational networks

and the fostering of transnational families that are depicted in North American Chinese-language literature are commonly observed phenomena in diverse transnational migrant groups. This critically informs the nature of overseas Chinese-language literature; it is a part of transnational migrant literature, written by overseas Chinese people who themselves belong to transnational migrant groups. Therefore, this paper argues that Overseas Chinese-Language Literature should no longer be identified through its affinity with particular strands of nationally categorized literary genres, such as Chinese literature, American literature, and Canadian literature. Instead, they should be approached from the perspective of transnational migrant literature.

Key words: Transnational Overseas Chinese Families, North American Chinese-Language Literature, Overseas Chinese-Language Literature, Chinese Literature, Sinophone Literature, World Chinese Literature

접수일: 12월 15일, 심사기간: 12월 25일~1월 15일, 게재 확정일: 1월 17일